

폭력으로 멎드는 아이들... 해결책은?

2013년 이후 학교폭력 검거 6만3429명 중 구속 649명에 그쳐... 소년법 폐지 목소리 커져

최근 부산과 강릉, 아산 등에서 청소년들의 폭력사건이 계속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1일 부산에서 여중생들이 같은 또래의 학생을 폭행해 피투성이가 만든 사건은 SNS를 통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게다가 폭행 후 가해자들이 SNS상에서 서로 채팅을 하거나 탄원서를 써줄 사람을 찾는 등 반성없는 피해자를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시민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또한 전주에서도 지난 27일 오전 3시 59분께 여중생이 투신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자살한 여중생이 평소 학교폭력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

면 2013년 이후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6만3,429명에 달했다.

그러나 이 중 구속된 인원은 649명에 그쳤다. 대부분의 학교폭력 사범들에 대한 조치는 불구속이나 훈방 등에 불과했다.

또한 2016년 기준 학교폭력 검거자 중 학교 밖 청소년의 비중이 40%로 이는 학교폭력 가해자 10명 중 4명에 해당된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은 범죄를 저지르는데 이를 제어하거나 대처하는데 있어 제한적이고 더 큰 범죄와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

현행법상 만 10세 미만은 어떠한 형사 책임도 지지 않으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해 형사처벌에서 제외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 등의 보호처분으로 대신 된다. 만 18세 미만은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징역 15년을 선고하도록 완화하고 있고 강력범죄 등에도 형량 제한하는 등 미성년자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소년법이 갈수록 흉폭해지는 미성년자 범죄에 대응할 수 없다며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소년법 폐지 관련 서명운동에 8일 36만명이 넘는 국민들의 서명이 이어졌다.

학교폭력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소년법 개정에 대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장재원 의원이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부산 폭행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이 만 13세로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처벌 제외 대상이 되어 촉법소년 적용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이 적지 않다.

외국의 경우 영국, 호주 등 10개국만 10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 등 40개국이 우리와 같은 만 14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표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개정안에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법에 대한 소년법상의 형량 완화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소년법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소년법의 존폐 여부의 귀추가 주목된다. /이상민 기자

국제라이온스협회356-C지구 전주지역

‘행복드림 결연사업 확약식’ 가져

전주시와 국제라이온스협회356-C지구 전주지역은 지난 8일 전주시지원봉사센터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 정성길 지구총재 및 전주지역부총재, 결연클럽 회장 및 동장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2018년도 청년전주 행복드림 결연사업 확약식'을 가졌다.

이날 확약식은 시와 국제라이온스 356-C지구가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민간단체의 우수한 인력과 예산을 시정에 접목해 공평하고 누수 없는 봉사를 추진하고자 체결한 협약의 연속성을 재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국제라이온스356-C지구 전주지역 40개클럽은 지난 2013년 1월 시와 협약을 체결한 이후 결연클럽 및 결연동과 공동으로 사업을 전개해왔으며, 매년 1억 3000여만원의 복지혜

택을 소외계층, 다문화가족, 소년소녀 가장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제공해왔다.

정성길 총재는 이날 확약식에서 전주시에 소외계층과 불우이웃들을 위한 1억 3000만원의 결연사업예정액을 전달하고, "전주시와 라이온스가 '사랑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민간협력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국제라이온스356-C지구와 전주시의 결연사업은 전국 민간협력사업의 우수모델로 거듭나고 있으며, 따뜻한 복지도시 건설을 지향하는 전주시 시장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라며 "오늘 확약식으로 라이온스와 전주시와의 민간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여 민선6기 따뜻한고 담대한 변화를 만들어 가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덕진경찰서, 자율방범대와 합동순찰

덕진경찰서는 지난 7일부터 11월 23일까지 11주에 걸쳐 정기적으로 분서 및 지역경찰과 자율방범대원이 함께 어두운 골목길 등 취약지에서 합동순찰을 실시한다.

이날 합동순찰에서는 평소 여성안심귀가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자율방범대원 2명에게 경찰서장 감사장이 수여됐다.

이어 덕진서장 등 경찰관 30여명과

자율방범대원 30여명이 함께 불꺼진 모래내시장 주변과 원룸 밀집지역, 상가 좁은 골목길 등 범죄 취약지 위주로 순찰을 실시했다.

합동순찰은 "자율방범대와 경찰이 짝을 합동순찰 기회를 통해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유지하길 바란다"며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범죄취약지역 위주의 실질적인 범죄예방활동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완산경찰, 수화통역센터에서 성폭력 예방교육

완산경찰서는 8일 오전 전주시 수화통역센터 방문해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김원근 여성청소년계장이 성폭력의 유형과 피해 신고방법, 성폭력범죄자 처벌내용, 장애인의 권리보장 절차 등을 설명했다.

경찰관계자는 "장애인 시설을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

시할 것"이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기관과의 연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 수화통역센터는 청각 장애인에 대한 권리보장을 위한 수화통역 서비스와 직업 및 취미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매일 30여명의 농아인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이상민 기자

불우이웃 저금통까지 훔친 50대 구속

식당을 돌며 불우이웃 저금통을 훔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8일 야간조동침입 절도 혐의로 A(50)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7월 1일 오전 0시 37분께 군산시 소룡동의 한 식당에 새벽에 식당이 문을 닫은 틈을 타 침입해 현금 14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민 기자

또한 A씨는 지난 7월 1일부터 8월 24일까지 새벽에 군산지역 음식점을 돌며 12차례에 걸쳐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범죄과정에서 불우이웃 저금통까지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중이다. /이상민 기자

서서학동·중화산동 고지대 수도물 '칼칼'

전주시, 10월까지 흑석골 가압장 이설·우석대 한방병원 인근 가압장 설치 추진

전주시가 가압장 설치를 통해 수압이 약해 수도물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전주시 서서학동과 중화산동 고지대 거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키로 했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는 고질적인 상수도 불출 민원이 발생했던 서서학동 흑석골과 중화산동 우석대 한방병원 인근 거주민들을 위해 가압장 설치공사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오는 10월까지 펌프 고장이 잦았던 서서학동 흑석골 가압장은 이설하고, 중화산동 우석대 한방병원 인근에는 가압장을 신설할 계획이다.

먼저, 고지대인 흑석골은 상수도가 나오지 않는 문제가 종종 발생하면서 서서학동 일대 588세대 1,400여명의 주민들이 생활용수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어온 지역이다.

이에, 시는 흑석골 가압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압구역을 축소하고, 직수 공급 구역을 확대키로 했다.

펌프 용량도 줄여 장기적으로는 전기사용료 등 연간 3,000만원 정도의 유지관리비용이 절감되고, 시설 노후화로 인한 고장으로 연간 5~6회 가량 발생했던 상수도 불출 문제도 감



전주시는 오는 10월까지 이설 노후화로 펌프 고장이 잦았던 서서학동 흑석골 가압장은 이설하고, 중화산동 우석대 한방병원 인근에는 가압장을 신설할 계획이다.

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시는 중화산동 우석대 한방병원 일대 고지대에 조성된 원룸 단지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가압펌프를 설치키로 했다.

가압펌프가 설치되면 원룸 17개동의 176세대 380여명이 겪는 수도물 저압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시는 해당 원룸단지뿐만 아니라 중화산동 일대 고질적인 수도물 수압문제와 불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불록화사업으로 주변지역까지 점차적으로 노후관을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김민근 기자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청영**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덕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